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2호 【루계 제24350호】 주체102(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전군의 모든 중대를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최정예전투대오로 만들자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28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정렬한 드넓은 광장에는 독창적인 중대강화사상과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선군령장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를 정예화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들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가 주석단량옆에 정렬해있었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창섭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광장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대의 례식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태양민족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온 대회참가자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무력건설의 첫 시기부터 중대강화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중대는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단위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중대강화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중대강화를 전군강화의 중심고리로 틀어쥐시고 중대강화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멀고 험한 전선길을 걷고 걸으시며 모든 중대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최정예대오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조직해주신 때로부터 4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건군사에 가장 큰 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연설에서 중대강화를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였다.

이번 대회는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연설자는 지금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대강화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당중앙의 기치아래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워 전군의 모든 중대들을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최정예전투대오로,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충정의 대오로 만들겠다.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을 틀어쥐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군, 만능병사로,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들로 억세게 키우겠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중대지휘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주어 중대들에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우리 사회의 밀뿌리인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휘관과 병사, 동지호상간 서로 아끼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친혈육의 정이 차넘치도록 하며 콩농사를 비롯한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중대를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겠다.

중대들에서 다채로운 예술소조활동과 체육오락사업을 조직하여 군인들이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게 하며 전군의 병영과 살림집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겠다.

모든 군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 돌격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벌려나가겠다.

특히 자본주의사상문화가 침습하지 못하게 정치사상사업을 공격적으로 벌려 그 사소한 표현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군인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인 선군문화가 차넘치도록 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세포인 중대들을 영원한 사상적순결체로 다져나가겠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한 당의 로선과 방침,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열렬한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로, 당중앙과 하나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며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는 투철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준비시키겠다.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언제나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령과 함께 돌격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서로 보조를 잘 맞추면서 군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중대앞에 나서는 군사정치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며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중대안에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겠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모든 사업의 기초를 중대를 강화하는데 두고 전군에 중대를 중시하고 도와주는 기풍을 확립하며 중대지도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중대의 주인구실을 잘하도록 적극 떠밀어줌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중대중시사상과 령도를 실천으로 받들겠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모든 중대들이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달려나가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으로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짓뭉개버리겠다.

이어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을 대표하여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중대장 함용봉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중대를 항일의 경위중대와 전화의 친위중대처럼 만들어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바쳐 사수하겠다.

중대강화는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중대장들은 바깥주인으로서, 중대정치지도원들은 안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며 서로 합심하여 중대를 혈육의 정이 넘쳐나는 전우부대, 무적의 전투대오로 만들겠다.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며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제일먼저 침략의 본거지들을 소탕해버리는 호랑이중대로 만들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해주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뜨거운 열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는 병사들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맏형, 맏누이의 구실을 다함으로써 군인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중대는 정든 고향집》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겠다.

3면으로 계속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 평양도착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와 일행이 28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비행장에는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쓴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국기게양대들에는 조선과 몽골 두 나라 기발이 나붓기고있었다.

대통령각하와 함께 대통령 부인, 롭싼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상,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 차간다린 엔흐투브신 국가안전리사회 서기장, 쩨렌데쥐딘 뱜바쟈브 무장력 총참모장, 하브샤인 에르쟌 도로운수성 부상, 룬데긴 뿌레브쑤렌 대통령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암갈란 바따린 간바따르 대통령대중련계 및 대중정책고문, 뿌레빈 알딴게렐 문화, 체육 및 관광성 국무비서, 그밖의 일행이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손광호 체육성 부상, 곽일룡 륙해운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조선몽골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비행장에서는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를 환영하는 의식이 있었다.

몽골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는 김영남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대통령각하와 부인에게 우리 나라 녀성근로자들과 주조 몽골대사관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로 향하였다.

행복의 보금자리들에 넘쳐나는 다심한 은정

오늘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준공식에 친히 참석하시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신 화폭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감격넘친 그날의 화폭은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그이의 은정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화폭중의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한해전 가을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 평양의 중심부, 명당자리—창전거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세워주시고 친히 각계층 근로자들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찾으시였던 살림집들에는 교육자가정도 있었고 이름없는 로동자가정도 있었으며 결혼식을 한지 2개월만에 새 집을 받은 새 세대 가정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아직은 친부모들도, 친혈육들도 와보지 못한 살림집들을 찾으시여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 등을 일일이 물으시고 수도꼭지까지 틀어보시며 각근한 정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은 정녕 친어버이사랑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래 창전거리살림집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직접 터전을 잡아주시고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는데 완공의 날을 보시지 못하였다고, 아마 장군님께서 계셨더라면 제일먼저 찾아오셨을것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 이렇게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말씀에 한평생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의 세계가 빛발처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평양의 중심부에 인민들을 위한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대책들도 면밀히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절세위인들의 열렬한 뜻에 떠받들려 마침내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명실공히 인민의 거리 창전거리가 솟아오른것이다.

인민의 웃음꽃 만발하게 피여나고있는 하많은 거리들이 우렷이 어려온다.

락원거리, 혁신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인민의 거리, 행복의 거리로 그 이름 자랑스러운 거리들을 되새길 때면 천리마거리가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날 밤에 있은 일이 돌이켜진다.

그밤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무에 열중하고계시였다. 낮에는 낮대로 인민을 위해 분초를 쪼개가시며 일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온밤 지새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선 일군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전화종이 울리였다.

전화를 받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눈가에는 밝은 웃음이 비끼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가?

후날 그 일군으로부터 그 밤의 기쁜 일에 대해 말씀해주실것을 바라는 무랍없는 청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천리마거리 새 집들이소식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였구나!

일군의 가슴속에서는 감탄이 터져올랐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마거리 새집들이를 한 인민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우리 사업의 기준은 여기에 두어야 한다고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인민의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고 대하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매일, 매 시각 보고 느끼신것은 인민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진정이였다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 지금까지 자신께서는 인민을 떠난 자신을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바치려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며 소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오로지 인민을 위한 념원을 안으시고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시며 그 길우에 전설같은 사랑의 화폭들을 떠올리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존재가 자리잡고있었으니 그이의 하늘같은 은정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실로 크나큰것이다.

숭고한 사랑의 력사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져 흐르고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모습으로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마련해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살림집부터 찾으시여 하늘같은 은정을 베푸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살림집들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인민극장이며 릉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등이 련이어 솟아올라 인민들의 웃음소리 하늘에 닿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만수교고기상점과 청량음료점 등 대중봉사기지들이 일떠서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고있다. 수도 평양만이 아닌 온 나라의 곳곳마다에 인민들의 살림집들과 강성원과 봉화원 그리고 공원들과 유원지, 놀이터 등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한 숭고한 념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시며 인민의 웃음꽃 만발하고 행복이 무르익는 훌륭한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를 마련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의 인민들은 그토록 위대하신분을 높이 모시여 대대로 누리는 복중의 복인 수령복, 장군복의 크나큰 의미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온 세상이 부러웁게 더 큰 행복과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오늘도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의 인민들은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김인선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첫자리에

깨우쳐주신 신발무게

언제인가 원산구두공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컬레의 녀자구두를 손에 드시고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였다. 녀자구두치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기때문이였다.

한동안 구두의 무게를 가늠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 공장에서 생산한 녀자구두가 너무 무겁다고, 구두창이 두껍고 무거운데 한컬레를 만드는데 든 구두창감을 가지고 더 많은 구두창을 만들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심한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신발의 무게에 대하여서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이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신발이라도 떨구지 않고 신고다니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민들이 가볍고 더 좋은 신발을 신고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인민의 심정에서 타산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건설중에 있는 창광원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대중탕에서 한번에 850명정도 수용할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수자를 거듭 외우시다가 일군들에게 850명이면 너무 작은데 이제라도 수용능력을 더 늘일수 없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아무 말씀도 올릴수가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현대적인 목욕탕에 오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심정에서 수용능력을 타산해본적이 있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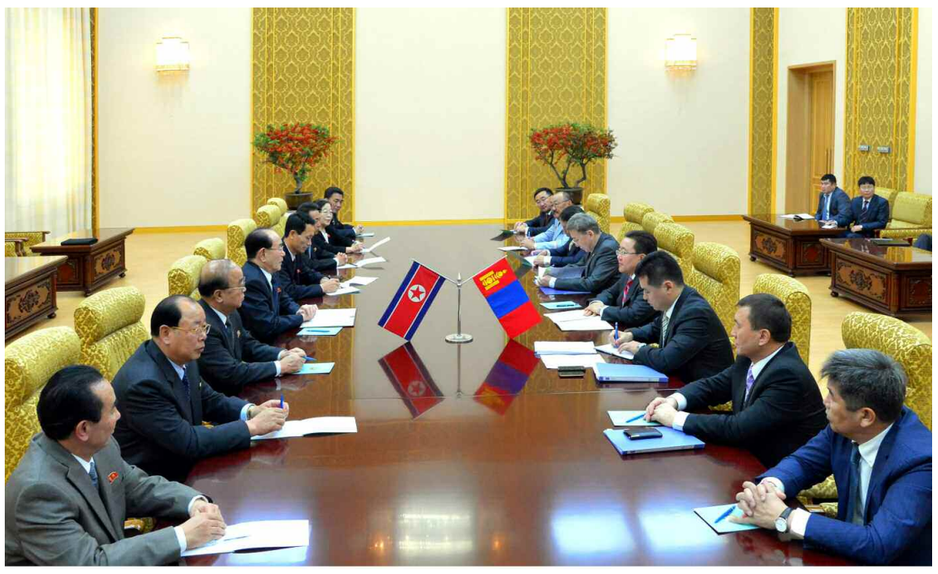
인민들의 심정에서 그 수용능력을 타산해보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군들은 이번에도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무거운 자책감을 안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용능력을 더 늘일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시면서 반복공사를 하자면 좀 힘들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것이 인민들의 요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 회담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의 회담이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리종무체육상,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 곽일룡 륙해운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롭싼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상,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 차간다린 엔흐투브쉰 국가안전리사회 서기장, 쩨렌데쥐딘 뱜바쟈브 무장력 총참모장, 하브샤인 에르쟌 도로운수성 부상, 룬데긴 뿌레브쑤렌 대통령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암갈란바따린 간바따르 대통령대중련계 및 대중정책고문, 뿌레빈 알딴게렐 문화, 체육 및 관광성 국무비서,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몽골 대통령을 환영하여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를 환영하여 2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관람에는 대통령각하와 일행,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손님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몽골 대통령이 관람석에 나오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였다.

서장 《조선의 행운》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혼성2중창과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녀성독창과 합창 《불타는 소원》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태양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심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과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생동하게 보여준 녀성8중창과 합창 《모란봉》, 소해금4중주 《종다리》, 남성독창 《바다의 노래》, 무용 《장고춤》 등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남성독창 《어머니를 추억하네》, 녀성독창 《나는 몽골과 같다》는 몽골인민의 조국애와 감정세계를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손님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다.

친선의 정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대통령각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몽골 대통령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를 위하여 28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대통령각하와 함께 대통령부인, 롭싼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상,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 차간다린 엔흐투브쉰 국가안전리사회 서기장, 쩨렌데쥐딘 뱜바쟈브 무장력 총참모장, 하브샤인 에르쟌 도로운수성 부상, 룬데긴 뿌레브쑤렌 대통령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암갈란바따린 간바따르 대통령대중련계 및 대중정책고문, 뿌레빈 알딴게렐 문화, 체육 및 관광성 국무비서, 관계인사들,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리종무체육상,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오금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 곽일룡 륙해운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조선몽골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이어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가 연설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친선의 정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 정부사이의 공업 및 농업분야에서와 문화, 체육 및 관광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 정부사이의 공업 및 농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과 문화, 체육 및 관광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28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장에는 우리 나라와 몽골 기발이 세워져있었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 곽일룡 륙해운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정성찬 국가쏘프트웨어산업총국 부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와 롭싼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상,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 차간다린 엔흐투브쉰 국가안전리사회 서기장, 쩨렌데쥐딘 뱜바쟈브 무장력 총참모장, 하브샤인 에르쟌 도로운수성 부상, 룬데긴 뿌레브쑤렌 대통령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암갈란바따린 간바따르 대통령대중련계 및 대중정책고문, 뿌레빈 알딴게렐 문화, 체육 및 관광성 국무비서, 관계인사들,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과 몽골 두 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공업 및 농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문에 리룡남무역상과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이, 문화, 체육 및 관광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문에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과 롭싼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상이 수표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쏘프트웨어산업총국과 몽골 정보기술, 우편 및 통신국사이의 2013-2015년 정보기술분야에서의 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몽골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연회에서 한 김영남동지의 연설

존경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대통령각하,

친근한 몽골의 벗들,

동지들,

나는 오곡백과 거두어들이는 풍요한 가을에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대통령각하와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올해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이 되는 동시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몽골을 두번째로 방문하신 25돐이 되는 의의깊은 해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공고발전시켜오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지난 60여년간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진실한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귀국의 전세대지도자들과 함께 공고한 기초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조몽친선협조관계는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발전되고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각급 대표단 교류와 래왕이 활발히 진행되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지협력도 그 어느때보다 긴밀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친선적인 몽골 정부와 인민이 존경하는 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면서 독자적이고 다방면적인 대외정책으로 자기의 국제적지위를 높여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습니다.

전진도상에 도전과 난관은 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몽골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원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며 귀중한 손님들인 당신들이 체류기간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친선의 정 넘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몽골의 친근한 벗들과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기합니다.

조선인민이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번영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연회에서 한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각하의 연설

존경하는 김영남각하,

조선의 동지들과 벗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님여러분,

나와 나의 부인 그리고 몽골대표단 성원들은 아름다운 나라인 조선에 도착한 순간부터 친절하게 환대하고 진심으로 맞이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몽골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남각하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들사이의 공식회담이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본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의된 모든 문제들이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경지에서 보다 풍부히 하고 호상리익에 맞게 적극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를 무역과 경제, 투자분야에서의 협조 등 전통적인 협조방식에 따라 더욱 확대하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될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남각하,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몽골인민은 몽골 국가와 정부의 선대지도자들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각하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초석을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오늘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와 인도주의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면한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습니다.

나는 조선인민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밑에 나라의 번영과 발전, 인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의 모든 나라들 특히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몽골은 이 지역에서 호상 신뢰와 리해를 이룩하고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인내성있게, 현명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몽골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해당한 모든 나라들과 협력할것입니다.

근면한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의 평화적통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끝으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민사랑의 말발굽소리 울린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또 하나의 창조물인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군대와 인민을 믿고 못해낸 일이 없으며 오늘 우리앞에는 더욱 휘황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말발굽소리,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로 훌륭히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의 드넓은 주로에 울려퍼진 말발굽소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도 세차게 격동시키는것인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또 한발의 승전포성을 울린 여기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며 우리는 소리높이 전한다.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 새겨진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시대의 맨앞장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을 개척해나가는 미더운 병사들의 위훈을!

승마주로의 끝은 그 어디…

우리는 지금 토사주로를 따라 걷고있다.

드넓은 도로마냥 장쾌하게 뻗어간 주로를 따라 걷느라니 눈앞이 확 트이고 말우에 올라 한껏 내달리고싶은 충동에 흥분을 누를길 없다.

참으로 많은것이 보인다.

토사주로옆에는 푸른 주단을 깔아놓은듯 잔디주로가 펼쳐져있다. 어린이들이 리용하게 될 모래주로도 있다.

여러가지 주로들만이 아니다.

62만 7 000여㎡나 되는 방대한 면적의 부지에는 승마주로들과 함께 승마봉사를 위한 수십동의 건물들도 자리잡고있다.

통나무장식으로 외벽처리를 한 승마지식보급실, 실내승마훈련장, 승마봉사소와 피로회복원, 수의병원, 종축연구소 등 다양한 건축물들은 특색있는 하나의 거리를 부감하는것 같은 느낌을 안겨준다.

추녀를 건듯 올린 정각들과 은구슬뿌리는 인공폭포, 각이한 짐승모양을 련상시키는 기묘한 바위들이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인공산구역을 바라보면 명산의 경치를 부감하는듯 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

인공폭포의 맑은 물이 춤추듯 흘러내리는 인공못도 볼만 하지만 아담한 휴식터들과 산보도로, 푸른 잔디와 나무들이 한데 어울려있는 넓은 부지의 공원구역은 또 그것대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우리 인민의 고상한 문화정서적미감을 반영하고 시대의 지향이 안겨오는 문명의 산화폭이 펼쳐졌다.

단 몇달사이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세상에는 제나름의 멋을 자랑하는 승마운동기지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미림승마구락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리여 최단기간에 일떠섰다.

미림승마구락부가 건설된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인민군대에서 리용하고있던 기마훈련장이 자리잡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구락부로 전변시킬데 대한 발기를 하시였다.

몸소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마장으로서의 위치가 참 좋다고, 승마운동을 하기에는 그저그만이라고 하시며 이곳을 잘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고난의 시기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세상에서 좋은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진정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공원화, 식물원화!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밭들이 한껏 풍치를 돋구어주고있는 구락부의 오늘과 더 좋을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된다.

우리 인민들이 입게 될 승마복의 도안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며 나이와 남녀별에 따라 형태와 색갈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이르신 위대한 사랑의 그 이야기를 아는이 불과 몇이던가.

달리자 질풍같이!

미림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이여,

드넓게 뻗어간 주로들을 무심히 밟지 마시라.

그밑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병사의 땀이 슴배여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병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후대운 창조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기적의 날과 달을 이어온 그들의 모습이 불굴의 군상마냥 우렷이 어려온다.

200여일, 그들은 이 짧은 기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같이 내달려왔다.

완공을 앞둔 건설장에 또다시 나오시여 승마구락부운영에 필요한 말 60여필을 보내주겠다고, 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건축물들도 많다.

하지만 그 건설과정은 물론 완공후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령도자와 그렇듯 깊은 인연을 맺고 인민들에게 안겨지는 실례는 오직 우리 나라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진정 여기 미림땅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은 날로 더해만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길이길이 전하는 또 하나의 격동적인 화폭이다.

사람들의 웃음꽃 한껏 넘쳐날 주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생각한다.

이 주로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가.

지금 이 시각도 인민을 위해 더 크고 더 새로운 구상을 펼쳐가고있는 어머니 우리 당!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애국헌신의 그 모든 낮과 밤이 이 주로에 다 비껴 어려오는것만 같아 마음은 숭엄해진다.

그 주로우에서 우리 인민은 말발굽소리 기운차게 울려가리라.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고있는 내 조국의 발걸음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쿵쿵 울리며 들려온다.

달리자 질풍같이!

첫시작부터가 격전이였다.

건물들을 일떠세워야 할 부지의 대부분은 두께가 백수십㎝나 되는 감탕층으로 뒤덮여있었다.

파내고파내도 사납게 태질하는 감탕층, 자연의 도전을 물리치며 한치 또 한치 힘겹게 전진해나가던 자동차들과 중기계들,

감탕층을 제거하고 륜전기재의 기동로를 개척하는데 드는 골재량만도 12만여㎥, 수십동에 달하는 건물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골재량과 그 운반에 드는 연유량은 또 얼마였던가.

그런 정황속에서도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주춤하지 않았다. 이들은 멀리 강기슭이 아니라 바로 공사장가까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찾았다.

중기계들이 일시에 발동을 걸고 주변지대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으며 끝내 골재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막대한 량의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낼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였다.

백수십㎝나 되는 감탕층을 통채로 들어낸 바로 그 자리에는 신념의 억센 기초가 다져졌고 단 70일만에 수십동의 건물골조들이 기운차게 일떠섰으며 골재원천을 찾는 과정에 나온 22만㎥의 흙은 그대로 인공산형성에 쓰이게 되였다.

달리자, 최고사령부의 야전차를 따라 질풍같이!

이것은 우리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신념과 의지의 산악처럼 자리잡은 일념이였다.

처음 해보는 작업인 동시에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실내승마훈련장과 야외승마훈련장의 트라스조립을 단 며칠동안에 끝내면서 우리 병사들은 오직 그 하나만을 생각했다.

피발이 선 눈을 잠간 붙일 사이도 없이 골재를 운반하고 미장을 하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외운것이 바로 이 말이였다. 식사하러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전투현장에서 때로는 선채로, 때로는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비물에 밥을 말아먹으면서도 모두가 억세게 가다듬은것이 바로 이 하나의 의지였다.

물어보자.

폭우속에서 수시로 벼락이 내려치는 하늘을 향해 기중기팔을 더 높이 쳐들어올렸던 운전공은 누구였으며 트라스조립기일을 한시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찔한 공중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낀 병사는 누구였던가.

두어깨에 피멍이 들고 잔등이 벗겨지도록 블로크를 져나르며 하루 80리, 최고 105리까지 달렸다는 조선인민군청년돌격대의 전투원들처럼, 하루 왕복 160회라는 기록적인 위훈을 창조하며 인공산형성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던 수송전사들처럼, 몇달이 걸려야 한다던 피로회복원, 종축연구소, 수의병원건물공사를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다그쳐 끝낸 미더운 병사들처럼 모두가 한모습되여 폭풍쳐 내달렸다.

어느때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병사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밤도 대낮처럼 환하던 이곳 공사장은 진정 사회주의문명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우리 조국의 한점 불덩이였다.

주로여, 너는 지금 이 시각도 얼마나 하많은 땀방울들을 소중히 품고있는것이냐.

군관들과 병사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인가족들까지 너나없이 떨쳐나 제 집 아래목을 손질하듯 한m 또 한m 고루고 티 한점 있을세라 쓸고 또 쓸어내던 모습들은 지금도 주로에 어려 조용히 빛나고있는것만 같다.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피와 땀이 슴배여있는 인공산에 올라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이며 아담한 정각들을 바라보느라면 마치도 황홀한 자연속에 있는듯 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우리 병사들이 험한 산발을 톺으며 하나 또 하나 마련해온것이고 전문가들과 지체를 합쳐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여 놓은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을 쿵 울려주는 세찬 충격으로 하여 저도모르게 눈물이 솟구친다.

0.1㎜,

가까이에 가서 보아도 잘 알리지 않을 그 자그마한 편차가 우리 병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야외승마훈련장에 백여개의 곡선부분이 있는 석등들을 세우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량심을 먼저 검증받았고 야외관람대에 새롭게 부각장식들을 하면서도 보증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지난 9월의 격전을 누구나 못 잊어한다.

피로회복원과 종축연구소, 수의병원을 최단기간에 완성해야 할 긴급과제가 떨어졌을 때 이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지 않았다.

비물에 온몸을 화락 적시면서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결사전을 벌리고 말뚝잠을 자면서도 병사들의 심장을 불태운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골조조립과 마감공사를 동시에!

건설력사상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공법이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의 병사들은 골조조립과 마감공사가 동시에 벌어지는데 맞게 양생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 실천에 도입하였다.

기초를 칠 때에는 그 구간에 벼겨를 펴고 불을 땠고 골조를 조립할 때에는 숯을 태워 양생기일을 과학적으로 앞당겼으며 배풍기도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해냈다.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할 작업량을 7일, 17일로 단축한 건설속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구상을 완강한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려는 병사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구상을 현실로 펼쳐가는 속도가 곧 조국번영의 속도이다!

이것은 승마구락부 군인건설자들이 시대앞에 뚜렷이 보여준 철리이다.

인공산의 기묘한 바위우에서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인공폭포, 그 형성을 위해 우리의 병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바쳐왔던가.

미림승마구락부의 인공산구역을 더욱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 칠보산으로 향한 군인들, 사진속에 담긴 칠보산의 천연바위를 그대로 실물을 보는듯 한 느낌을 주는 경치로 전환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들은 철근으로 골조조립을 하고 그물망을 씌워 그우에 콩크리트타입을 하면서 칠보산천연바위의 모습을 훌륭히 형상해내고야말았다.

젊음으로 약동하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병사들은 창조의 땀으로, 자기의 두손으로 력사에 새기였다.

병사의 손,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가.

세멘트물에 퉁퉁 붓고 찍찍 터갈라진 그 손으로 연약한 꽃모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심고 가꿔온 우리의 병사들,

미림승마구락부의 곳곳에 피여난 갖가지 꽃들은 전호가에 억세게 뿌리를 내린 꽃들마냥 숭엄한 격정을 불러일으킨다.

향유가 아니라 수호와 창조에 삶과 투쟁의 근본목적을 둔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래일을 위해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원림화, 식물원화를 위해 달려나온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병사들과 함께 일하며 또 한번 정신력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낮과 밤을 모르고 투쟁하는 군인건설자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이들은 3일만에 연 4 550여m에 달하는 생울타리를 조성하였고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는 건물들과 승마주로들을 바라보며 50여종에 수천그루의 나무들과 수만㎡의 잔디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해마다 이룩되고있는 성과도 크고 놀랍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중한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속도를 창조하며 그 모든것을 일떠세운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무한대의 정신력과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확신이다.

사회주의문명국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꿈은 나날이 커지고있다.

그 꿈,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우리 당이 있고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병사들이 있다.

인민이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믿으라!

그리고 병사처럼 살자.

우리의 꿈은 소중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가 없듯이 그 꿈은 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손, 자기의 땀으로 조국의 오늘을 가꾸어나갈 때 이 땅에는 창조의 푸른 숲이 더욱 무성해지고 보다 휘황할 래일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말발굽소리여,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라.

더더욱 거창한 진군길이 우리앞에 펼쳐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두다 신심드높이 앞으로!

본사기자 리철옥
본사기자 김충성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는 일군들의 응당한 본분

오늘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적극 따라배워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해나가는데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로작에는 우리 일군들모두를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선군시대의 참된 인민의 충복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들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우는데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라는 말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뜻을 밝히시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일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로작에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펼친 강성국가건설구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이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다. 문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어떤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다운 인민의 복무자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에는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위하여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민위천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숭고한 인민관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은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관을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마다에서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이 꽃펴났고 전설같은 인민사랑의 서사시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일군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밤길도 걷고 남보다 등짐도 많이 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과정은 그대로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의 발현과정으로 된다. 인민관이 바로선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일군들은 난관과 시련에 포로되여 주저앉고만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도, 일군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업실적도 결국은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남보다 잠을 좀 못자고 고생을 더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것이 우리 일군들이 발휘하여야 할 투쟁기풍이다.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사업하는 일군에게는 세도와 관료주의가 싹틀수 없고 특전을 바라는 현상이 있을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칠 때 인민들은 우리 당의 고마움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이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 일군들은 모두 인민들속에서 나오고 인민의 믿음속에서 일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일군이라면 응당 인민대중제일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여 그 덕을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될 때 그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고 당의 령도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기 기업소, 자기 군의 종업원들과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당위원회일군들처럼 모든 일군들이 후방사업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여기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 조국땅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애민의 불같은 헌신으로 하나하나 마련해놓으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쯘한 생산토대가 있다. 이 생산토대들이 은을 내게 하자면 모든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본새와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 달려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있을수 없다. 오늘의 벅찬 시대는 난관앞에 주저앉아 조건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일군, 한가지 일을 해놓고 만족해하는 일군이 아니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실천가형의 일군들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지휘관들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본받아야 한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데서도 제일이고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도 제일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최상의 믿음으로 받아안고 아무리 생소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맡아나서며 자기 힘을 믿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풍모이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인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게 된것은 인민군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일군들이 과감한 공격정신과 주도세밀한 작전, 이악하고 깐진 일솜씨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간다면 인민생활향상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로 삶을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김은주

1면에서 계속

중대정치지도원 박현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군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혁명적인 사상문화를 확립하여 중대를 당의 혁명사상만이 꽉 들어찬 사상적순결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바다의 결사대, 돌격대로 만들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중대안에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확립하겠다.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부르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모든 해병들이 침략의 해적무리가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한몸이 그대로 작렬하는 어뢰가 되고 폭뢰가 되여 바다속에 수장해버리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인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중대를 서로 정과 뜻이 통하며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전우부대로, 수령결사옹위의 최정예전투대오로 만들겠다.

중대장 리철호는 하늘의 결사대, 육탄용사들의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비행사들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는 길영조형의 육탄결사대로 억세게 준비시키겠다.

모든 비행사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최고사령관동지의 제일동지, 제일전우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언제나 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는 지휘관이 되겠다.

중대안에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어나가겠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원쑤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안기겠다.

우리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 높은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우리는 맹세한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중대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열의안고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간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과학적인 방법론, 완강한 실천투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본격적인 공사계절이 하루하루 흐르고있는 요즘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그 어느곳이나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로 하여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보람찬 대건설전투의 순간순간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일 비상한 각오를 안고 각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공사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당면한 공사대상인 각종 수력구조물들의 콩크리트치기실적은 10월에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수천㎥나 더 늘어나고 굴착과 성토공사실적도 훨씬 장성되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일마전까지만도 건설장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콩크리트치기실적이 또다시 돌파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새 대상공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져 전투원들의 심장을 펄펄 끓게 하고 승벽심을 더해주고있다.

보기 드문 장마피해를 가셔내며 가을철시작부터 희천용사의 기질과 본때로 더 줄기차게 달려왔건만 조금도 기진함을 모르고 성차하지 않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이다.

지금 이들앞에는 희천발전소 1단계공사첫해의 근 2배나 되는 방대한 올해전투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할 아름차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로 하여금 이제 남은 본격적인 공사계절의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줄잡아 달리며 더더욱 분발하여나서도록 자각시켜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추위가 닥쳐오기 전까지 최대의 진군속도로 내달리자.

—요즘의 공사계절을 발전소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제끼는 획기적계기로 되게 하자.

나이지숙한 일군으로부터 건설장의 나어린 돌격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오직 이 하나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위훈의 한길을 따라 최대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모든 려단들에서 최대의 콩크리트치기실적을 내도록 하며 지금부터 겨울철공사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들을 앞질러 타산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공사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자재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고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에 따라 각 단위들에서 콩크리트치기구간을 더욱 넓히고 발전소건설공사를 립체전의 방식으로 동시에 내밀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구조물들의 기초콩크리트치기성과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뛰여오르고있다.

황해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은 청천강반에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불과 20여일동안에 청천강의 흐름을 바꾸어놓는 방대한 가물막이공사를 끝낸 려단전투원들은 그 기세로 언제기초굴착에 진입하였으며 취수구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려단장 로력영웅 김석철, 정치부장 안영구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은 언제기초굴착과 취수구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쳐 높이 세운 올해전투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열의밑에 전투조직과 지휘를 결패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여러 대상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력량편성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전반적인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하고있다.

취수구수문기둥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해제낀 려단전투원들이 충천한 기세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고있다. 다짐작업을 맡은 벽성군대대의 전투원들은 혼합물을 규정대로 펴고 다짐기들의 진동효과를 최대로 높여 콩크리트구조물의 질을 높이고있으며 해주시, 삼천군, 안악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각종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골재를 제때에 운반하고 혼합물의 배합비률을 철저히 지키면서 혼합기들을 만가동시켜 콩크리트치기실적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신원군대대의 전투원들도 맞들이전, 질통전을 힘차게 벌리며 혼합물생산에 필요한 세멘트와 물, 골재들을 혼합장에 신속히 운반함으로써 콩크리트치기작업이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올해전투승리를 위해 힘차게 내달리는 려단전투원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하여 언제기초굴착과 취수구수문기둥의 콩크리트치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희천3호발전소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발전기실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많은 량의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해제낄 목표밑에 공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실속있는 대책들을 기동성있게 세우고있다. 특히 발전기실기초굴착을 구간별로 내밀며 콩크리트치기를 동시에 립체적으로 벌리도록 시공조직을 짜고들고 굴착기를 비롯한 기계화수단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희천시대대의 전투원들이 이미 유처리실벽체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기세로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희천정밀기계공장대대의 전투원들이 매일 취수탑콩크리트치기과제를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고있다. 물길굴확장공사를 맡은 1대대와 2대대의 전투원들은 매일 높은 굴진실적을 내고있으며 강계시와 성간, 고풍, 우시군대대의 전투원들도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봉락구간에 대한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를 단 며칠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뿐이 아니다.

평안북도려단 전투원들은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빠른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면돌파전으로 언제굴착과 콩크리트치기준비를 다그치면서 공격전의 도수를 높여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있다.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굴착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하루빨리 발전소를 일떠세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릴 불타는 열의로 가슴끓으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각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성과는 나날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언제와 취수구조물공사 적극 추진

함경남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희천11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올해공사목표점령을 위한 중요돌파구의 하나를 작업구간을 최대로 늘여 립체전을 벌리는데서 찾고 방대한 량의 취수구바닥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기세로 언제굴착에 달라붙어 련일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전투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길이 90여m, 폭 60여m의 가물막이뚝이 형성되고 보름 남짓한 기간에 1만㎥의 언제토사굴착실적이 기록되였다. 하여 머지않아 언제암반굴착과 동시에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김일영, 신학철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본격적인 공사계절에 맞게 언제굴착과 취수구바닥굴착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이달안에 무조건 끝냄으로써 올해전투과제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킬 비상한 각오안고 공사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해나가면서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특히 이들은 공사속도를 최대로 높이는 중요방도의 하나를 굴착기, 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였다.

려단전투원들은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일념안고 언제굴착과 취수구굴착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면서 매일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언제굴착을 맡은 려단의 운수중대전투원들은 굴착기와 자동차들의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면서 그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언제굴착실적을 부쩍 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흥남항대대와 단천시대대, 홍원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정대와 함마로 취수구암반굴착전투를 본때있게 내밀어 매일 과제를 2배이상으로 넘쳐수행하였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 불타는 열의밑에 맞들이전, 질통전, 마대전을 힘차게 벌려 대대가 맡은 버럭처리를 제일먼저 해제껴 취수구바닥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 함경남도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발전소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철도성려단에서

사회주의경쟁 활발

희천10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철도성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지난 9월말에 착공한 우안언제기초굴착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고 콩크리트치기를 다그칠 목표밑에 공사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돌격대원들이 굴착공사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목표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대대별작업과제를 정확히 분담해주고 일정계획대로 공사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돌격대원들의 높은 열의가 그대로 공사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려단의 전투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기어이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 불타는 일념안고 우안언제기초굴착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개천철도국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될 청천강의 래일을 그려보며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게 질통전, 맞들이전, 마대전을 힘차게 벌려 매일 300여㎥의 버럭을 처리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평양철도국, 함흥철도국, 청진철도국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공격정신,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으로 밤낮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며 맡은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하여 려단에서는 짧은 기일안에 수천㎥의 기초굴착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낌으로써 언제우안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은을 내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

평양시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10월초였다. 공사장에서는 언제의 수문기둥들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따라 혼합물보장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필요한 기중기를 조립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조건에서 공사속도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자면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였다.

백종원, 최용수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돌격대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서로의 힘을 합쳐가며 해결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 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탐구리용하여 광차에 의한 수직운반로선을 새로 형성하고 혼합물을 보장하면서 콩크리트치기를 들이대자는 안이 제기되였다.

모두의 한결같은 지지속에 려단에서는 새 운반계통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룡성구역대대 전투원들은 자체의 공무기지에 의거하여 활차와 광차제작에 달라붙었으며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력포구역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전동기와 감속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와 부분품, 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특히 리광룡동무를 비롯한 보통강구역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경사발판형성방법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면서 먼길을 오가며 아글타글 애씀으로써 불과 며칠사이에 설비, 부속품들을 일식으로 갖춘 새 운반계통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광차에 의한 수직운반로선이 곳곳에서 가동하면서 언제수문기둥공사는 더욱 박력있게 추진되고 공사장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려단전투원들의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인듯 권양기들의 동음이 그칠줄 모르고 취수구도류벽과 옹벽, 취수구수문기둥과 수문보관실을 비롯한 작업장들에서 중구역, 동대원구역, 강동군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전투원들이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순간의 답보도 모르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6개의 언제수문기둥은 승리의 정점을 향해 계속 힘차게 치솟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현지보도

공격전의 열풍 휘몰아친다

◎ 평안남도려단전투장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희천8호발전소건설을 제기일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면공격전, 립체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평안남도려단의 전투장이다.

취수구도류벽과 물고기길, 취수구옹벽과 방수로옹벽 등 소리치며 일떠서는 수력구조물들의 모습은 볼수록 장쾌하다. 지휘관과 대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질풍같이 내달린다. 길게 뻗어나간 가물막이뚝과 드넓은 언제공사장, 주변에 나붙은 구호들, 펄럭이는 붉은 기들이 올해공사목표점령을 위해 떨쳐나선 이들의 불같은 열정과 억센 기상을 엿보게 해준다.

우리에게 려단참모장 김용철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의 분초를 한시간맞잡이로 내달려 기어이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려는 우리 려단전투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습니다. …》

그의 말에 의하면 려단에서는 9월사회주의경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가물막이 확장과 언제굴착공사를 다그치며 취수구와 방수로의 수문기둥, 발전기실과 방수로바닥의 굴착 및 콩크리트치기 등 작업대상의 폭을 최대로 넓히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이에 따라 보름동안에 가물막이뚝이 수십m나 뻗어나가고 단 하루동안에 첫 구간의 언제보강판기초콩크리트치기가 수행되였으며 발전기실의 정리굴착이 완성되여 지금은 또 어려운 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를 비롯한 여러 공사들을 동시에 본때있게 추진할수 있게 되였다.

려단일군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발전기실바닥의 마감구간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맡은 평성시, 성천군대대의 전투원들이 여러곳에 혼합기들을 설치하고 대대별로 골재와 세멘트운반, 혼합물보장과 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친다.

이에 뒤질세라 드넓은 작업장의 량쪽에서 취수구와 방수로수문기둥공사에 떨쳐나선 은산군, 개천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이 휘틀조립을 앞세우면서 련속 콩크리트치기실적을 높여간다. 발전기실바닥과 이웃한 방수로공사장에서는 이미 첫 구간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문덕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이 방수로콩크리트치기구간을 더욱 넓혀간다.

골재가 딸릴세라 맞들이전, 질통전을 들이대며 혼합장으로 줄달음치는 전투원들, 련속 쏟아져내리는 혼합물을 운반하는 돌격대원들과 쉼없이 진동기를 돌려가며 다짐작업을 질적으로 다그치는 전투원들의 얼굴마다에 구슬땀이 흘러넘친다.

말그대로 여러 작업장들에서 통쾌한 전면공격전, 신바람나는 립체전이 벌어진 셈이다.

《이렇게 작업구간을 최대로 확장하고 집중적인 콩크리트치기전투를 벌리니 정말 성수가 납니다. 요즘의 공사계절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공격 또 공격을 들이대여 올해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것이 우리 려단 전체 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입니다.》

일군의 말을 실증이라도 해주듯 분초를 다투며 구조물들은 자기 자태를 더욱 뚜렷이 드러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일념안고 한마음한뜻으로 총돌격전에 나선 전투원들이 있기에 려단의 방대한 올해전투목표수행에서는 련일 큰 성과가 이룩되고 희천8호발전소건설에서는 승리의 돌파구가 힘있게 열리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에서 광물증산투쟁의 앞장에 선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때로부터 검덕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광물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고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금골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광물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인디아대사관 성원들 평양외국어대학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디아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아제이 꾸마르 샤르마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8일 평양외국어대학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대학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그쯘히 갖추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연혁소개실과 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권대사는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손님들은 대학에 교재들을 기증하였다.

중국방문 《로동신문》대표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김원석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대표단이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진 로동신문사 부주필이 전송하였다.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귀국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숭고한 정신, 값높은 최후

무역짐배 《대각봉》호 선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날바다를 헤치며 항행하는 무역짐배들은 때없이 자연의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된다.

뜻밖의 강풍과 세찬 파도, 해일 등이 짐배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배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륙해운성의 무역짐배 《대각봉》호도 그런 뜻밖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그날의 바다날씨는 수만t급 짐배도 이겨내기 힘든 최악의 상태였다. 강풍이 불고 높이가 4~5m나 되는 집채같은 파도가 배전을 련속 들이쳤다. 무섭게 날뛰는 바다에서 《대각봉》호는 가까스로 전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배가 급기야 기울기 시작했던것이다. 바다의 세찬 요동으로 배에 실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탓이였다.

《대각봉》호에서는 조국을 향해 전파가 날았다. 배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 보고받은 조국에서는 시급히 탈출할데 대한 지시를 보내여왔다. 탈출이라는 말은 《대각봉》호 선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때리였다. 조국의 한 부분이고 살점과도 같은 배를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선장은 조타를 더 굳게 틀어잡았다. 항해갑판원들과 기관사, 조기원들을 비롯한 선원들은 자기 위치를 더 든든히 차지하였다.

그때 선원들모두는 운신하기 힘든 상태였다. 세찬 파도에 의한 충격과 걷잡기 힘든 배의 요동으로 몸의 여러곳에 부상을 입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를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투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조국에서는 여러척의 구조배와 비행기를 《대각봉》호가 있는 수역으로 급히 파견하는 한편 《대각봉》호 선원들에게 빨리 탈출하라는 지시를 거듭 보내여왔다. 만약 그때 《대각봉》호 선원들이 탈출하였다면 희생을 내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순간까지 배와 운명을 같이하였다.

《대다수의 시신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초상화를 품고있었다. 조난당시 필사적으로 꺼낸것으로 보아진다.

…대다수가 붉은 통을 안고있었다. 붉은 통안에는 비닐로 정중히 싼 초상화가 손상되지 않은채로 들어있었다.》

이것은 《대각봉》호 일부 선원들의 시신들을 발견한 어느 한 나라의 보도자료이다.

배가 침몰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대각봉》호의 선원들이 생각한것은 자신의 생사가 아니였다.

그들은 뼈가 골절되고 피가 흐르는 몸으로 배의 계단과 복도를 기여다니면서 선실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들과 영상작품들을 수밀보관함에 정히 내려모시였다. 그리고 함통을 품속에 간수하였다.

그들의 시신이 발견된 후 하나와 같이 품속에서 붉은색수밀함통이 나졌다. 시신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붉은 함통속의 초상화와 영상작품들에는 물기 한점 스미지 않았다.

자기는 죽더라도 수령의 초상화는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려는 각오를 안고 풍랑에 몸을 던진 《대각봉》호 선원들, 그들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도 절세의 위인들의 초상화를 물기한점 스며들지 않게 지켜낸 사실은 세계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각봉》호 선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에서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당의 품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선군조선의 불굴의 힘의 원천을 다시금 느꼈을것이다.

《대각봉》호 선원들은 최후의 시각에 조국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모셔주기 바란다.》

최후순간에 수령의 초상화를 품에 간직하며 령도자의 안녕을 절절히 소원한 《대각봉》호의 선원들,

선장 한강겸, 초급당비서 하운룡, 사무장 박인남…

우리는 여기에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과 조국은 그들을 잊지 않는다.

무역짐배 《대각봉》호는 지난 기간 만리대양을 헤치며 대외화물수송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각봉》호가 나른 짐의 무게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짐을 더 많이, 더 빨리 나르기 위해 《대각봉》호 선원들은 분초를 다투며 일하였고 전투적으로 생활하였다. 그들은 배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수명을 늘이며 수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새 기술도입과 창의고안사업을 적극 벌리였으며 많은 연유와 자재를 절약하여 나라에 리익을 주었다. 몸은 비록 대양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살며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서는 건설장들도 적극 지원하였다. 동해기슭에 건설된 단천항에도 《대각봉》호 선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희생된 《대각봉》호 선원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이 수여되였다.

《대각봉》호 선원들은 세상사람들에게 공화국의 공민,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자기들의 빛나는 최후로 똑똑히 보여주었다.

비록 조국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우에 있어도 자기 수령의 거룩한 영상을 자나깨나 심장에 안고 사는 사람들, 살아도 수령결사옹위의 인생길을 걷고 죽어도 수령결사옹위의 영생의 길을 택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고결한 인생관을 온 세상에 시위한 《대각봉》호 선원들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독자의 편지

이런 로당원들을 자랑합니다

청남구 효성동에는 조응조아바이를 비롯한 7명의 로당원동지들이 살고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기 안주탄전에서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다가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석탄문제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한 막장길을 걸으시게 한것이 죄스럽다고 하면서 2009년 4월부터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막장소공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우리 탄광에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탄광들에 지원한 막장소공구는 3 500여개에 달합니다. 년로한 그들이 삼복철의 무더위도 가림이 없이 뜨거운 열기가 내뿜는 작업장의 로앞에서 함마질을 하느라 힘인들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각종 소공구들을 탄부들에게 보내주는 한편 막장에 찾아와 전시가요도 불러주면서 석탄증산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강성국가건설에 여생을 깡그리 바쳐가는 로당원동지들의 고결한 당적량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정철호

《유신》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고발장

최근 남조선에서 피뢰보수패당에 의한 《유신》독재부활이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유신》독재의 복구는 시대에 역행하는 력사의 반란이며 정의와 민주에 대한 도전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에 또다시 파쑈암흑시대를 불러오는 《유신》독재부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장을 발표한다.

《유신》독재체제의 구축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은 무엇보다 《유신》독재체제가 전면적으로 구축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악명높은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후 남조선에 전대미문의 1인독재체제를 세워놓고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현 집권자 역시 권력을 차지한 후 《유신》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1인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집어던지고 청와대의 직할통치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대내, 대외정책과 《대북정책》까지 청와대가 직접 좌우지할수 있게 함으로써 피뢰국무총리와 행정부 각 부, 처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청와대안에서도 독선과 전횡으로 자기의 일방적의사만을 내리먹여 누구건 아무런 의견도 낼수 없게 하고있으며 비서관들과 보좌관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눈밖에 날지 몰라 떨고있다.

이로 하여 청와대 비서관은 《예스맨》(예, 예 하면서 무조건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 장, 차관은 《멍부형관료》(멍청해서 하라는 일만 부지런히 한다는 뜻)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박정희가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을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었다면 박근혜 역시 여당과 《국회》를 둘러리로 만들거나 배제하고 모든 문제들을 독단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야당은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아 《불통》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권력기구도 《유신》독재식으로 개편하거나 《유신》독재시기 통치기구를 전면적으로 되살려놓고있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를 총괄하여 본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정희가 1963년에 내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부활시킨것이며 피뢰정보원은 《유신정권》때 중앙정보부와 같이 법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어 선거조작,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하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제는 1964년에 내온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직제를 이름만 조금 변경하여 되살려놓은것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1963년에 박정희가 만든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복구해놓은것이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박정희집권시기의 《경제장관회의》를 되살린것이다.

박근혜가 새로 내오려 하고있는 《국방정신전력원》 역시 1977년 박정희가 피뢰군에 대한 《반공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김대중《정권》에서 페쇄되였던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되살리기 위한것이다.

그밖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인 《문화륭성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보자문단》 등도 《유신》독재시기에 나왔던것들을 부활시킨것이다.

《유신》잔당들과 그 후예들이 권력의 자리에 대량복귀하였다.

박근혜는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신정권》때 국방부 장관의 아들,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당시 집권당이였던 《공화당》의원의 아들, 《정영사》(박정희와 처 륙영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기숙사)와 《청호회》(박정희경호원들의 모임)출신 인물들을 비롯하여 《유신》잔당들과 후예들을 그에 끌어들였다.

취임후에는 그러한자들을 그대로 현 《정권》에 망라시켰을뿐아니라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실장, 경호실 실장, 위기관리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과 정보원 원장 등 요직들에는 박정희집권시기 륙군사관학교출신의 인물들을 들여앉혔다.

박근혜《정권》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허태렬은 박정희집권시기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자로서 지금도 《박정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떠벌일 정도로 역겨운 《유신》숭배자이다.

그 후임으로 올라앉은 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악명높은 《유신헌법》작성에 직접 참가한자로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정희의 심복부하이다.

피뢰행정부를 보아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유신》통치시기 경제기획원에서 복무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며 농림축산부 장관 리동필, 법무부 장관 황교안 등은 《유신》찬양론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한편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5.16쿠데타직후 군부깡패들로 조직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고문이였던 류형진의 아들이다.

피뢰보훈처장 박승춘은 륙군사관학교출신으로서 박정희를 찬양하고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악질적으로 고아댄 《유신》족속이다.

참으로 현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유신》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유신》잔당들과 그 후예들로 꾸려진 《제2의 유신정권》이라고 할수 있다.

되살아난 옛 《유신》의 유령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미화분식하고 그때의것을 되살리는 놀음을 벌리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자기가 정치무대에 나서게 된것은 《아버지의 정치적명예회복》을 위한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온 박근혜는 집권후 박정희를 내세우며 《유신》의 유령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그에 따라 피뢰정부의 각 부, 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재평가하거나 《기념》하는 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지 34년이 되는 지난 10월 26일 서울과 박정희의 고향 경상북도 구미에서 벌린 《추도식》이라는데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피뢰보수패거리들은 《유신》을 극구 미화하다 못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찬양하고 극악한 《유신》독재자 박정희역도를 《대단한 어른》이니 뭐니 하고 추어올렸다.

특히 《박정희기념재단》 리사장 손병두라는자는 《박정희가 이루려고 했던것을 박근혜와 함께 반드시 건설하겠다.》느니,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느니 하는 망발까지 줴쳐 여론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중구 신당동에는 《박정희기념도서관》과 《박정희기념공원》이 이미 건설되였거나 새로 건설되고있는가 하면 경상북도 구미에는 《박정희민족중흥관》이, 포항시와 청도군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과 《새마을운동발상지공원》이 세워지고 남조선강원도 철원에는 그 무슨 《박정희공원》이라는것이 꾸려지고있다.

심지어 경상북도 문경시에는 박정희가 자주 다니였다고 하여 주막이 들어서고 《박정희국밥》, 《박정희칼국수》라는것까지 생겨났는가 하면 울릉도에도 박정희가 하루밤을 묵은것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세우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박정희지도력연구원》이라는것까지 나와 뻐젓이 운영되고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던것처럼 자기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박정희의 경제분야에서의 《치적》도 적극 내세우고있다.

특히 박정희가 1970년대에 벌려놓은 그 무슨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꾸어놓은 정신혁명》이였다느니, 《기적을 이룬 동력》이였다느니, 《〈유신〉의 지도리념이고 실천의 행동철학》이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개혁운동》으로, 《범국민적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고있다.

한편 박정희의 《유신》독재시기를 《산업혁명시대》로 미화분식한 기록영화와 련속극들을 만들어 내돌리는가 하면 남조선 곳곳에 만들어놓은 《박정희기념관》이니, 《박정희공원》이니 하는데를 참관시키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지어 1만 2 000여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에 《박정희대통령특별전》에 참가할것을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지난 8월 피뢰국사편찬위원회는 극우보수단체인 현대사학회가 박정희 《유신》독재통치를 미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근현대사를 심히 외곡하여 편찬한 력사교과서를 심의하고 통과시켜 래년 3월부터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력사교과서는 박정희를 그 무슨 《산업화의 은인》으로 내세우고 박정희가 조작한 《유신헌법》은 《북의 위협에 대처한 불가피한 선택》,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5.16군사쿠데타는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이라고 서술하였다.

박근혜는 그 무슨 《창조경제론》을 내들면서 그것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광고하고있으며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까지 들고나가 농촌마을들에 우물파기니, 마을회관건립이니 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그에 대해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유신〉의 망령 박정희가 살아있는 우상이 되고있다.》고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살벌한 《유신》파쑈광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은 각계층에 대한 파쑈적탄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후 정치적적수들과 야당을 대대적으로 숙청, 박해하고 무고한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여 공포정치, 폭압정치로 악명을 떨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때를 방불케 하는 무지막지한 탄압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정보정치, 폭압정치가 판을 치는 속에서 정당, 단체활동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인권마저 깡그리 박탈당하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을 조작하여 민주당을 《주권포기세력》, 《북에 굴종한 세력》으로 몰아대며 《조사》니 뭐니 하는 소동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종북》소동을 일으키다 못해 내란음모사건까지 조작하여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서는 《리적단체》로 규정된지 오랜데 아직까지 활동한다고 하면서 살벌한 검거선풍을 일으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사무차장, 대외협력국장 등 핵심성원들을 구속탄압하는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14년동안 합법적인 로동조합으로 활동한 진보적인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몰면서 《불법단체》, 《리적단체》의 딱지를 붙여 말살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다.

박근혜는 전교조를 《해충과도 같은 존재》,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탄압을 적극 부추기고있다.

피뢰패당은 공무원로조 성원들이 박근혜를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여 압수수색을 벌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는가 하면 철도로조의 핵심인물들이 비합법적조직을 결성하고 《종북세력확대》를 꾀하였다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그들에게 형벌을 들씌우려 하고있다.

심지어 로조들에서 압수한 콤퓨터자료들에 《로동》, 《민족》, 《통일》이라는 표현만 들어있어도 《반국가행위》의 증거라고 떠들어대면서 폭압의 칼을 들이대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박정희《유신》깡패들이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리적》, 《용공》으로 몰아대며 야수적으로 처형하던것을 너무도 방불케 한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지금까지 몇달사이에 피뢰보수패당이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금한 인사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훨씬 많은 103명에 달한다.

피뢰파쑈당국은 《보안법위반사범은 중대범죄자이므로 이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청와대는 《발언지침》이니, 《보도지침》이니 하는것을 수시로 아래에 내리먹여 그가 누구이건 《대통령의 생각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말하고 기사를 쓰는 일이 없도록 압을 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네트싸이트에 《종북게시물》이 넘쳐난다고 하면서 집권 8개월간 2만 3 790여건의 글을 강제삭제하고 수백개의 인터네트싸이트들을 강제페쇄하였다.

진보언론인 《자주민보》에 대해서는 불법화하여 아예 없애버리기 위한 모략도 감행되고있다.

현 《정권》에서도 인민탄압에 최루탄까지 등장하여 사람들을 경악시키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이 이미 심각한 현실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유신》독재의 부활은 지금 남조선 각계층의 거세찬 비난과 항의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 야당과 재야, 시민사회단체들과 로동자, 농민, 대학교수,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고등학교학생들까지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고있으며 피뢰보수패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매일과 같이 발표하고있다.

각계층의 반《정부》초불투쟁은 박근혜의 고향인 대구를 포함한 남조선 전지역으로 확대되고있다.

《〈유신〉독재부활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고 하면서 자살로 항거하는가 하면 청소년학생들과 어머니들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유신〉독재통치하에서 공부하지 않게 해달라.》, 《아이들을 〈유신〉독재세상에 내맡기고싶지 않다.》고 절규하면서 투쟁의 광장에 달려나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유신》독재시기와 같은 악몽이 다시 그대로 펼쳐지고있다.

《유신》독재의 부활은 북남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지금 피뢰보수패당은 《유신정권》때와 똑같이 《대화있는 대결》, 《체제대결》을 제창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있다.

《유신》독재부활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여 더욱 결연히 일떠서야 하며 내외여론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과 함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기어이 저지파탄시킬것이다.

피뢰보수패당은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력사와 민족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유신》독재부활책동에 매달린다면 박정희《유신》독재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주체102(2013)년 10월 28일
평 양

지극한 사랑과 헌신은 기적을 낳는다

전쟁로병들을 위해 바쳐가는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수도의 어느 한 중앙병원으로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구급환자의 가정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환자의 병상태가 매우 위급하다는것을 느낀 의료일군들은 즉시 구급왕진을 조직하였다. 소생과의 의사, 간호원들이 집으로 달려갔을 때 환자는 의식이 없었다. 가족들은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의료일군들만 쳐다보고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의사 오문남동무도 아직은 환자를 살릴수 있다는 의학적인 결론을 내릴수 없었다.

* *

환자의 병력서를 바라보는 의료일군들의 눈길이 문득 굳어졌다.

이름 리동규, 나이 76살.

퍽 귀에 익은 이름이였다. 온 나라 인민이 사랑하는 축구경기해설원인 교수, 박사 리동규선생이였다. 얼굴은 몰라도 그의 이름과 목소리는 온 나라 인민이 알고있었던것이다.

한편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데 맞게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검사수치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미 뇌수의 많은 부분에 병조가 생겼으며 여기에 여러가지 만성질병들까지 겹치여 생명은 분초를 다투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을 종합하며 과장 양창원동무는 말하였다.

《동무들! 온 나라 인민이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과장의 크지 않은 목소리는 의료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 소생의 기적은 우리들의 심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과의료일군들이 떨쳐나서고 병원일군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바삐 뛰였다.

생명지표들은 분과 초를 다투었지만 의료일군들은 신심있게 달라붙었다.

혈압과 체온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최중증상태여서 그의 곁에는 항시적으로 의사, 간호원이 있어야 하였다. 하여 오문남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순간도 환자의 곁을 뜨지 않고 며칠밤을 새우며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의 노력으로 3일째 되는 날 환자의 의식은 점점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료일군들의 마음은 더욱 긴장해만졌다. 한것은 환자의 신경세포를 최대로 보존하고 앞으로의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면 초기치료를 잘해야 했기때문이였다.

비록 소생되였다 하여도 환자가 이전처럼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다면 어떻게 의사로서의 할바를 다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자각과 불같은 열정은 의사들만이 아닌 간호원들의 가슴속에서도 끓고있었다.

간호장 최은희동무와 간호원들인 진옥, 리향, 김봄동무들은 환자가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에 떠받들려 환자는 며칠만에 드디여 소생할수 있었다. 소생의 기쁨을 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는 환자를 바라보는 의료일군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였다.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온 그날부터 얼마나 긴장한 치료전투의 순간순간을 이어왔던가.

중환자들이 때없이 들어오는 속에서도 과장과 담당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과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떨쳐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고 또 뛰며 뜨거운 정성을 기울였다. 아니 병원의료일군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보조를 맞추었다. 병원일군들은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며 즉시즉시 대책을 세워주었다.

이 나날 환자에게 주입된 약물은 30여가지가 넘으며 각종 검사들이 수없이 진행되였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여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병원책임일군인 김정철동무는 과장과 환자의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선생님, 저의 소원입니다. 그이가 잘 걷지는 못해도 하루빨리 마이크앞에 설수 있게 치료기일을 앞당길순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언어장애를 빨리 푸는 좋은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도간도간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일군은 다음날 그날호 신문을 의료일군들에게 가져다주며 이렇게 당부하였다.

《과장동무, 축구박사선생에게 신문을 매일 읽도록 하시오. 그는 꼭 축구경기해설을 다시 하게 될것이요.》

그날부터 아침마다 신문을 독보하는것은 환자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였다.

간호원들이 그가 발음을 정확히 할 때까지 반복시키기를 그 몇번…

이렇게 흘러간 두달 남짓한 병원생활기간 그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인간애와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닌 참된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새겨졌다. 환자가 아파하면 같이 괴로와하고 환자가 웃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그와 의료일군들사이에는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가 아닌 친혈육의 정이 흘렀다. 이런 사랑과 정, 헌신에 받들려 인민이 사랑하는 리동규축구박사는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제발로 병원문밖을 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축구경기해설을 계속할수 있다는 의학적인 담보도 받았다.

* *

지난 8월 14일은 리동규동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였다. 우리 당은 77번째의 생일을 맞는 이날에 그의 인생을 영광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었다.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 기쁨과 행복에 대해 누구에게 먼저 알릴것인가.

송수화기를 든 리동규동무는 제일먼저 이곳 병원의료일군들을 찾았다.

《내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국내의 최우수선수들의 축구경기를 해설하는 영광을 지니였소. 고맙소. 동무들이 아니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영광과 행복을 상상이나 할수 있단 말이요.》

《선생님, 축하합니다. 우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한 인간의 소생을 위해 바쳐진 길지 않은 나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우에 넘치는 거세찬 창조의 숨결에,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 시대 참된 의료일군들의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비껴있음을 다시금 후덥게 새기게 된다.

본사기자 김옥별

온성군의약품관리소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후세대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며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됩니다.》

온성군의약품관리소 종업원들이 전쟁로병들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올해에 이들은 군안의 전쟁로병 수백명에게 건강에 좋은 고려약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공급해주었다.

지난 시기에도 이곳 종업원들은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의약품들을 해당 단위들에 공급해주는 한편 여러 계기들에 전쟁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보약제들을 안겨주며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하여 자기 사업에 대해 다소나마 만족을 느끼고있을 때 이들을 다시금 분발시키는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보건부문일군회의에 참가한 소장 허문숙동무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한 보건일군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그들의 소행에 비해볼 때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도 적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그는 종업원들과 마주앉아 각지의 보건일군들이 발휘한 소행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종업원들 역시 받아안은 충격이 컸다. 그 충격은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열의를 더해주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회령고려약공장을 돌아보면서 이곳 종업원들은 고려약을 엑스화하기 위한 생산기지도 새로 꾸리고 더 많은 면적의 약초재배기지를 꾸릴 결심을 굳혔다.

일판을 크게 벌려놓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섰다.

종업원들의 힘만으로는 아름찬 일도 많았지만 누구나 인민의 복무자라는 자각을 안고 헌신의 구슬땀을 약초재배기지에 뿌려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이전보다 20여종의 약초들을 더 재배할수 있는 약초밭을 새로 조성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약초들을 재배하여 자체로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고려약을 엑스화하기 위한 생산기지도 훌륭하게 꾸려놓을수 있었다.

그속에서도 이곳 종업원들은 전승 60돐을 맞으며 군안의 모든 전쟁로병들에게 건강에 좋은 고려약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통이 큰 계획을 세웠다.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항목별로 선정하고 필요한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뛰고 또 뛰였다. 부원 남명철동무는 약초재배기지에 없거나 부족되는 약초들을 구입하기 위해 군과 도의 여러곳을 다니며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일단 약초들이 확보된 다음에는 박성욱, 박성일, 정광철동무를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긴장한 생산전투를 벌렸다.

전쟁로병들을 위한 이들의 진정에 감동되여 종업원가족들, 군당위원회일군들도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뜻깊은 전승 60돐을 며칠앞두고 이들의 성의가 깃든 고려약지함들을 받아안은 전쟁로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고마운 조국을 위해 한몸바쳐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행복한 오늘을 위해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전쟁로병들의 기쁨넘친 모습에서 참된 복무자의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온성군의약품관리소 종업원들은 오늘도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자식과 함께 물길건설장을 찾은 사연

해주시 연하동 120인민반 양춘화녀성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합쳐 가고있다.

—평양도시설계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얼마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황해남도물길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자식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한 녀성을 만나게 되였다. 그는 해주시 연하동 120인민반 양춘화녀성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잘 키우려면 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날 양춘화녀성은 잠든 맏아들의 머리말에 놓여있는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하루생활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실을 꼭꼭 일기장에 남기는 아들이였다. 글줄을 읽어내려가던 그는 가슴이 뜨거웠다. 아들은 일기장에 텔레비죤을 통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는 격정을 적고나서 원호물자를 안고 군인건설자들을 꼭 찾아가겠다고 썼던것이였다.

아들이 무척 대견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두해전 2월 맏아들 룡진이가 조선소년단입단을 앞두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어머니와 함께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안고 도**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찾은 룡진이는 이렇게 말하였었다.

《앞으로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면서 **김정일**화를 정성껏 피워가겠어요.》

양춘화녀성과 그의 남편인 오정철동무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도록 하리라 마음다졌다.

룡진이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손자의 성장에 늘 마음을 쓰며 그의 손목을 잡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군 하였다. 이 나날에 룡진이의 마음도 몰라보게 커갔다.

그후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한 양춘화녀성은 아들과 함께 군인건설자들을 찾았다. 이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감동된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주시 부용초급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오룡진학생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리라.)

이런 불같은 결의를 안고 양춘화녀성은 자식과 함께 황해남도의 농업생산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는 물길건설장으로 찾아왔던것이다.

특파기자 리승철

자주권이 없는 외세의 철저한 식민지

괴뢰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정책과 반인민적악정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전반은 물론 북남관계까지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주제넘게도 국제행사를 주최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뻔질나게 해외행각놀음을 벌리면서 그 무슨 《선진국》냄새를 피우고있다. 그들의 가소로운 추태는 만사람의 조소만을 자아낼뿐이다.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선진국》은커녕 초보적인 자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외세의 철저한 식민지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주구의 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해방직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포악무도한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 해산해버리고 저들의 지배정책에 반기를 드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공공연한 파쑈적테로를 가하였다. 한편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폭압기구와 제도를 식민지지배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을 영원히 손아귀에 틀어쥐고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전락시키기 위해 미국은 괴뢰당국을 예속과 지배의 사슬에 더욱 바싹 얽어매놓았다.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저들의 리익실현에 완전히 복종시킨 미국은 근 70년간 치외법권적특권을 누리면서 제왕처럼 행세해왔다. 결과 남조선은 오늘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전반분야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첨예한 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통해서도 미국의 식민지주구로서의 괴뢰들의 가련한 처지를 잘 알수 있다.

군사주권을 잃으면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남조선의 리승만괴뢰도당은 미국에 군사작전권을 넘겨줌으로써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상전의 꼭두각시로 되고말았다. 군사주권이 없는 남조선이야말로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가 아닐수 없다. 그후 남조선이 《평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빈말이다.

반미자주를 지향하는 각계의 줄기찬 투쟁과 대세의 흐름에 의해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결국 그것을 2012년까지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되였다. 그러나 상전에게 모든것을 내맡기고 영원히 외세의 주구로 살기를 원하는 쓸개빠진 괴뢰보수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들어놓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것을 2015년까지 연기하였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무슨 《안보환경》과 《조건》을 운운하며 그것을 또다시 연기하려고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바싹 매달리며 애걸복걸하고있다. 자주권행사의 기본징표인 군사주권을 외국이 행사하는 식민지남조선을 《선진국》으로 볼 사람이 이 세상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군사적예속과 정치적예속은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정치적으로 예속되면 군사적예속을 피할수 없고 군사적예속이 심화되면 정치적예속도 심화되기마련이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모든 문제를 좌우지하는 미국이 괴뢰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틀어쥐고 간섭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괴뢰정권의 출현과 정책작성, 집행의 전과정에 미국의 간섭과 배후조종의 마수가 깊이 뻗치고있다.

현 괴뢰당국은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키는 주구집단, 하수인《정권》이다. 괴뢰패당은 력대 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조선지배전략실현에 복무하고있다. 그들은 모든 대내외정책적문제들에 한하여 전적으로 미국에 의탁하고있으며 걸음걸음 미국의 의사를 따르고 그의 지시와 배후조종밑에 움직이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마련해준것도 미국이고 집권유지의 열쇠를 쥐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만일 미국의 지지가 없다면 그들의 운명이란 끈떨어진 갓신세나 다를바 없다. 더우기 자기의 리해관계에 맞고 비위를 잘 맞추며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주는 주구들은 싸고돌며 비호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차던지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가 미국의 조종을 받은 자기 심복의 총에 맞아죽은 사실이 이것을 말해준다.

현 괴뢰집권세력의 정책은 어느것이나 다 제것이 아닌 미국의 정책을 본따거나 옮기고 그들의 승인을 받은것이다. 그들이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것도 사실상 그 실체는 미국의것이다. 현 괴뢰당국자는 동서랭전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을 무장해제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만든 《헬싱키프로세스》를 모방한 《대북정책》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달아 2011년에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에 처음으로 실었다. 그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그것을 자기의 《대북립장》으로 발표하고 올해 5월 미국행각을 통해 상전의 최종인준을 받았다.

《대북정책》뿐이 아니다. 괴뢰들의 경제정책도 미국의 가치관을 숭상하며 그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들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고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것이다. 오직 상전에게 잘 보여 권력을 유지하는 역적질밖에 아는것이 없는 괴뢰패당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과 정치, 경제적예속화책동에 적극 추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실현을 위해 복무하면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독재와 폭압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의 비호밑에 친미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에 의해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북남관계는 파국에로 치닫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남들이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제멋에 겨워 《선진국》흉내를 내는것은 실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다. 괴뢰들이 밖에 나가 다른 나라들과 회담을 한다, 무엇을 제안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는것은 외세를 배경으로 저들의 몸값을 올려 제 집안에서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파멸의 위기에 몰린 구차스러운 신세를 모면하기 위한 유치한 술책일뿐이다. 괴뢰들이 아무리 식민지주구의 오명을 벗어보려고 발버둥질해도 그들의 처지는 달라질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괴뢰패당의 사대매국통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질것은 치욕과 불행, 고통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누리고 인간답게 살자면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와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앞잡이가 되여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괴뢰패당을 력사의 시궁창에 쓸어넣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심 철 영

정세파국을 부추기는 도발적인 불장난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미친듯이 몰아오고있다.

지난 24일부터 괴뢰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2013 호국》훈련이라는것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11월 1일까지 남조선전역에서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에는 대규모의 괴뢰륙해공군무력과 미제침략군이 투입되였다.

괴뢰합동참모본부는 올해의 《호국》훈련이 륙해공군의 《합동작전수행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각 작전지역에서 벌어지며 기계화보병사단 쌍방훈련과 련합편대군훈련 등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괴뢰호전광들은 지난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미국과 련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썬더》연습을 벌려놓았다. 괴뢰공군의 《KF－16》, 《F－4E》, 《C－130》, 《CN－235》와 미공군의 《FA－18》, 《F－16》, 《A－10》 등 근 100대의 각종 전투기들과 1 0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력대 최대규모의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는 공중전과 폭격훈련이 실전과 다를바 없이 감행된다고 한다.

괴뢰패당이 북남관계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고있는 시기에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공공연한 핵선제공격기도의 발로이다.

괴뢰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대규모의 전쟁불장난소동을 일으키면서 마치도 그것이 그 누구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있는 그자체가 도발자들의 파렴치성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을 론한다면 응당 미국과 괴뢰당국을 문제시하여야 한다. 괴뢰패당이 미국과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에 맞도장을 누르고 미제의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조선동해와 남해, 서해에서 매일과 같이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쳤다는것은 세계에 공인된 사실이다.

괴뢰들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떠들기 전에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도발에 기승을 부린 저들의 죄행부터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도발과 전쟁의 위협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가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불장난소동이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번 《호국》훈련은 괴뢰륙해공군무력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합동작전을 위주로 하여 남조선전역에서 동시에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군단급작전계획시행훈련과 대해상, 해안침투훈련, 합동상륙훈련, 합동방공훈련 등 그 내용에서도 극히 공격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더우기 전쟁연습이 미제침략군과 합동으로 벌어지는것은 그 엄중성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지금 남조선에서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이 력대 최대규모에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고있는것 역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북침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그 장본인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당국이 이처럼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계속 광란적으로 터침으로써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와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북침의 칼을 사납게 벼리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행위부터 중지되여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날뛰는 괴뢰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하여 임의의 시각에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재난이 들씌워질수 있는 현실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내외호전세력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에 강위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으로 대처해나갈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도발소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최 철 순

박근혜《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각계층 군중 1만여명 범국민초불투쟁 전개

26일 남조선의 서울역광장에서 괴뢰패당의 선거개입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범국민초불집회가 있었다.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 진보련대, 전교조, 화물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로동운동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시국회의 공동대표 박석운은 박근혜《정권》이 불법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로골적으로 방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채동욱을 검찰총장자리에서 밀어내고 윤석열을 특별수사조에서 배제시킨것이 대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것은 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까밝혔다.

권력기관이 감행한 선거개입행위의 배후에는 바로 박근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는 34년전 독재자 박정희가 비참하게 종말을 고한것처럼 불의한 권력은 기필코 망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참여련대 사무처장 리태호는 선거개입행위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 권력기관의 선거개입뿐아니라 박근혜의 사건은폐음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주민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범죄행위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리영주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죽이기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하면서 전교조는 해고자는 물론 전교조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위원장 신승철은 곳곳에서 로동자들이 해고되고 전교조를 비롯한 로조들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지탄하였다.

정보원을 단죄하는 남조선종교인들

토지오염실태 폭로

최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가 괴뢰군부대들에 의한 토지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실을 폭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괴뢰군부대들과 군사기지의 토지들을 조사한 결과 40여곳이 백혈병과 피부질환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들에 의해 심히 오염되여있다. 괴뢰군사격장주변의 토지들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허용한도를 훨씬 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우리가 앞장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중적애국운동을 활발히 벌려 새 세대를 비롯한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보다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동포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총련을 둘러싼 엄혹한 정세로 하여 재일동포들의 생활환경은 의연히 어렵지만 민족교육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지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가고있다. 특히 조청원들의 뜨거운 민족교육지원열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조청 오사까부 본부는 몇해째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우리 학교들을 강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본부산하 16개 지부성원들이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종합공연 《오사까의 불길－미래를 안고 살자!》에는 한사람한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애국애족의 불씨를 모두 모아 거세찬 불길을 일으켜 민족교육을 끝까지 고수발전시켜나가려는 이곳 조청원들의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고등학교지원대상제외와 보조금지급 전면금지 등 일본당국의 악랄한 민족교육차별조치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동포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미더운 교육자들

지금 총련은 민족교육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놓고 력량을 총동원하여 이 사업에서부터 애국위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특히 교육일군들은 난관극복의 강한 정신력과 희생성, 책임성을 발휘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해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다.

총련 후꾸오까조선초급학교 교직원들이 특히 모범이다. 사실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지역동포사회의 활동거점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10여년전부터 장거리통학과 어려운 재정형편, 학령어린이의 감소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이 학교에서 최근년간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그 비결은 교직원들의 이악하고 꾸준한 노력에 있다. 이들은 지역의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하면서 동포들과 일상적으로 만나 학교의 발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갔다. 그 나날 학교를 제힘으로 고수발전시켜나가려는 책임감과 자각이 보다 높아진것은 물론이다.

학생들을 유능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수교양사업과 학생인입사업, 준정규교육망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투쟁 등에서도 이 학교 교원들은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

학교에서 지난 2009년부터 한달에 한번씩 《하루개방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는것도 주목되는 문제이다. 교직원들은 이날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즐거운 모임들을 진행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실물로 느끼게 하고있다.

조청 후꾸오까현 야하따지부도 학교지원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지부의 활동지역에는 총련 기따규슈조선초급학교와 규슈조선중고급학교 등 2개의 우리 학교가 있는데 동맹원들의 대다수가 이 학교들의 졸업생이다. 지금 이들은 지역 청상회성원들과 함께 학교를 위한 모금운동과 꾸리기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조청원들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은 민족교육을 고수확대하고 동포사회에 애국의 대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애국의 숨결이 높뛰고 따뜻한 사랑의 정이 흘러넘치는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마음의 한점 구김살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서 젊은 어머니들은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한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의 땀방울을 바치면서도 교직원들은 누구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민족교육의 요람인 우리 학교를 더 잘 꾸려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애국위업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 차있었기때문이다.

해빛밝은 교실에서 배움의 글소리 랑랑히 울리며 믿음직한 민족인재들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것이 그들에게는 더없는 희열이고 보람이다. 얼마전 《애국애족학교》의 영예를 지니는 뜻깊은 마당에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더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리명박역도를 검찰에 고소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4대강공사를 강행한 리명박역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단체들은 리명박이 대운하건설을 4대강사업이라고 민중을 속이며 강행하고 그 과정에 예산을 불법지출하여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리명박과 그에 추종하여 4대강공사를 추진한 판계자 57명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것을 주장하였다.

전교조탄압에 맞서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4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전교조탄압에 맞서 투쟁할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로동운동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의 로조말살책동에 대응하여 민주로총과 산하단위들에서 항의운동을 전개할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이름난 항구도시－이스딴불

뛰르끼예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항구도시인 이스딴불이 있다.

이스딴불은 유럽과 아시아사이에 위치하고있다. 면적의 절반은 유럽에, 절반은 아시아에 있다. 이스딴불은 뛰르끼예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이곳에는 고대그리스인과 뛰르끼예인들의 문화유적들이 있다. 이스딴불은 큰 무역항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상공업중심지의 하나로 되였다.

이스딴불은 B.C. 65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395년부터 1453년까지 동로마제국의 수도로 있었다. 그후 1918년까지 오스만－뛰르끼예의 수도, 1923년 10월까지 뛰르끼예의 수도였다. 1923년 뛰르끼예의 수도는 앙까라로 되였다.

이스딴불은 륙지가 침하되여 이루어진 협곡에 형성된 까라데니즈해협에 의하여 도시가 갈라져있다.

이 해협북부의 가장 넓은 곳은 너비가 4㎞이고 중부의 가장 좁은 곳은 690m밖에 안된다. 해협의 가장 깊은 곳은 80m이고 가장 얕은 곳은 27.5m이다. 때문에 대형선박들도 거침없이 드나들수 있으며 흑해와 지중해를 련결해주는 배길로 리용되고있다.

까라데니즈해협에서 배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흑해연안나라들에 직접 가닿을수 있으며 남쪽으로 향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갈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철길이 이스딴불을 통과하고있다. 이곳에서 기차를 타면 프랑스의 빠리에 직접 가닿을수 있고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이란의 테헤란에도 가닿을수 있다.

이스딴불시의 높은 곳에서 서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유럽이 지척에 바라보이고 동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2 000여년동안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던 비단길이 바라보인다.

오늘은 뛰르끼예에서 공화국이 선포된지 90돐이 되는 날이다.

김 수 진

자연피해

－중국 하남성에서 최근 가물이 계속되여 피해를 입고있다. 현재 성적으로 가물에 의한 피해자수는 14만 5 000명에 달하고있으며 1 860만무의 농경지가 가물의 영향을 받고있다. 성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아쩨주에서 22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났다. 23일현재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60여채의 살림집과 사원들, 학교들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였다. 현지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웰남에서 최근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태풍에 의한 사망자수가 늘어나고있으며 약 1만 3 000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거나 파손되고 3만 4 000여채가 침수되였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오염피해 의연 심각

일본에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23일 도꾜전력회사는 지난 8월 많은 량의 오염수가 흘러나간 발전소탕크부근에 있는 배수구의 물에서 스트론티움 등 방사성물질이 1L당 최고 14만Bq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북극에 떠도는 군사적대결기운

－북극은 평화와 안정의 지대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북극리사회 제8차 상급회의에서 발표된 특별성명의 골자이다. 그만큼 북극에서는 군사적대결기운이 나날이 짙어가고있으며 안정보장이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개발가능한 얼음산밑의 풍부한 전략자원과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수송로, 무역통로가 북극쟁탈전을 산생시키는 요인이라는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북극을 둘러싼 나라들사이의 경쟁이 오늘날 첨예해지고있는데는 보다 중요한 원인들이 있다.

우선 북극에 대한 연안국들의 관할권을 담보규제하는 국제법적기초가 없는데 있다.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다. 남극의 경우 1961년에 효력이 발생한 국제적인 조약이 있다. 남극조약에 의해 남극쟁탈전은 이미 막을 내렸다.

반면에 북극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당한 조약이 없다. 그러므로 북극지역에 대한 관할경계선이 명백하게 구분되여있지 않다. 그런것으로 하여 연안국들이 저마다 북극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나서고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해역이 자기 령토의 대륙붕의 연장선에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립증되는 경우 그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에 따라 로씨야와 미국, 카나다, 단마르크를 비롯한 북빙양연안나라들은 지질조사를 진행한다, 유엔에 령유권문제를 제기한다 하면서 맹렬하게 움직이고있다.

하지만 연안국들의 상반되는 리해관계의 충돌로 하여 문제해결가망은 점점 묘연해지고있다. 나라들사이에 모순과 갈등만 깊어지고있다.

지난 시기에 있은 사실을 보자. 북극에는 핸즈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섬이 있다. 단마르크가 여기에 자기 나라 기발을 꽂았었다. 이 섬은 카나다도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다. 북극자원개발을 나라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카나다는 그에 즉시적으로 반응해나섰다. 카나다는 단마르크에 항의를 들이대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핸즈섬에 자기 나라 기발을 게양하였다.

단마르크와 카나다뿐이 아니다. 바렌쯔해의 분할문제를 놓고 노르웨이와 로씨야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있다. 그런가하면 로씨야와 카나다는 북빙양연안에서부터 북극점까지의 일부 해역에 대한 주권문제를 놓고 의견상이를 보이고있다.

특히 로씨야의 탐험대가 북극의 바다밑에 자기 나라 기발을 꽂음으로써 연안국들의 대립과 충돌이 첨예화되였다. 이로부터 사태해결을 위해 북빙양연안나라들이 모여앉아 이러저러한 열기띤 론쟁을 벌리고있으나 그 식이 장식이 되고있다.

연안국들이 군사력에 의거하여 자기의 북극정책실현에 달라붙고있는것은 지역의 안정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북극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는 랭전시기부터 시작되였다.

쏘미 량국은 북빙양에서의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렸다. 그들은 저마다 북빙양에 잠수함들을 파견하여 해저지도를 작성하였고 상대측의 활동을 감시하였다.

미국의 잠수함들은 쏘련의 미싸일잠수함들을 항시적으로 감시권안에 넣고있었으며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쏘련의 잠수함들을 타격하게 되여있었다. 그것도 쏘련잠수함들이 미국령토를 향해 미싸일을 날리기 전에 재빨리 없애치우는것이였다. 얼음층밑은 물론 얼음우에서도 맹렬한 정보전이 벌어졌다. 1970년이후 미국은 북극에 면적이 약 20㎢에 달하는 대형얼음산정보기지를 세웠다. 쏘련도 마찬가지였다. 쏘련의 《북극》계렬의 얼음산정보기지들은 13개이상에 달하였다. 이 시기 쏘미사이의 북극쟁탈전은 군사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현시기 북극쟁탈을 위한 각국의 힘겨루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 사상과 리념의 대결이 아니라 전략적안전과 경제적리익에 뿌리를 두고있다. 또한 로미사이만이 아닌 연안국들사이의 다국적인 대결로 특징지어진다.

쟁탈전이 첨예화될수록 북극에서 자기의 군사적존재를 강화하려는 유관국들의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미국은 이미 알라스카와 그 주변수역에 레이다와 수중음향탐지기를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을 배치하고 북빙양연안나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견제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미국은 군사적방법에 의거한 북극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보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해군북극로정도》를 작성한 미국은 그에 따라 군사력배비를 다그치고있다.

2020년까지 북극을 《주요한 전략적자원기지》로 만드는것은 로씨야의 목표이다. 로씨야는 북함대사령부를 북부쎄베로모르스크에 두고 북극해역방위를 위임하였다. 중단했던 북극에 대한 함선순찰과 전략폭격기순찰비행을 재개하는 한편 북극의 천연자원개발시 연안국들의 무력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까지 세웠다.

다른 나라들도 이에 뒤지려 하지 않고있다. 올해 8월에만도 카나다는 북극해역 콘월리스섬에 군사훈련쎈터를 세웠다. 노르웨이도 보데에 배치할 약 60대의 전투기를 다음세대 스텔스전투기 《F－35》로 바꾸고 반항공능력을 한층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있다.

북극에 떠도는 짙은 군사적대결기운이 앞으로 어떻게 번져지게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31169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